2014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

메시지 11

신성한 같은 형상을 이룸을 위하여 신성한 변화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림 (2)

성경: 고후 5:14-15, 롬 14:7-9

I.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서 배움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린다—마 11:28-30, 비교 엡 4:20-21.

A.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어렵고, 엄하고, 날카롭고, 괴롭고와 대조되며 좋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편하고, 유쾌하다—요 4:34, 5:30, 6:38, 사 7:14-15, 비교 요 6:57.

B. 주님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런 짐은 무겁지 않고 가볍다—고후 2:13, 롬 14:17-18, 빌 2:12-16.

C.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움으로써 얻는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내적인 안식은 다만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가리킨다—마 12:8, 사 56:2, 58:3, 출 31:13-14.

II.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삶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린다—고후 5:14-15, 롬 14:7-9.

A.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 아래 있음으로써 그분의 큰 기쁨이 되는 존귀를 얻으려고 결심했다는 것과 우리가 유일하게 그분의 목표와 목적을 관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후 5:9.

B.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생활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키며 그분이 의도하신 것을 완성하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후 5:9.

C.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를 우리 생활의 목표로 삼아 우리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관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D. “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산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난 사랑이다—고후 5:14-15.

1. 헬라어로 ‘ 강권합니다.’ 는 (마치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길에서처럼) ‘ 사방에서 압박하고, 한 끝으로 밀어붙이며, 강하게 제한하고,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한 목표를 향해 한정시키며, 하나의 노선과 목적을 향하도록 가두는 것’ 을 의미한다.
2. 비록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의 길을 항상 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한정시켜서 유일한 목표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향하는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길로 향하게 한다—빌 3:14.
3. 그리스도의 기운을 내게하며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 강권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운내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킴으로써 사람이 기운을 내게할 수 있다—삿 9:13, 고후 5:18-20, 아 1:2, 비교 아 4:10.

E.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 죽으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그분께 속했다는 것의 증거이다—롬 14:7-9, 고전 6:19-20, 벧전 1:18-19.

III. 우리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을 따라 행함(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가짐)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린다—롬 8:4, 2, 9, 16.

A.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그 영에 의존하고 그 영에 의해 규제받는 것, 즉 그 영을 우리의 생활의 본질로 취하는 것이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 안에서의 실질적인 생활과 행동들이 그 영에 의해 안내받고 제한받는 것, 즉 그 영을 우리의 길로 취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갈 5:16, 25.

B.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며 그 영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삿 9:9, 고후 3:6, 8, 삼상 2:30, 요 12:26.

C. 주님은 우리의 혼을 복원시키시고(즉 부흥시키고 변화시키시며)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흐름 안에 있는 의의 길에서 영에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시 23:3, 롬 8:4, 계 7:17, 22:1.

D.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즉 영의 느낌을 관심함으로써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고 생명의 영의 법은 자동적이며 자연스럽게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롬 8:2, 4, 6.

E.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을 따라 섬길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고 자동적이며 자연스럽게 그 영의 열매를 맺는다—갈 5:16, 22-25, 빌 3:3, 롬 1:9.

F.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 영의 열매를 맺거나 육체를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일을 나타낸다—갈 5:16-26, 6:12, 빌 3:3.

G. 만일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육체와 육체 뒤에 숨어 있는 마귀를 패배시킬 것이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육체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이길 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출 17:8-16.

IV. 우리는 그 영에 이르도록 심음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린다—갈 6:7-10.

A. 그 영에 이르도록 심는 것은 그 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관점을 가지고 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 영을 우리의 목표로 갖는 것이다.

1. 사실상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 영에 이르도록 심는 것이다—갈 5:16.
2. 우리의 생명과 생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즉 그 영을 우리의 목표로 취해야 한다—갈 6:8.
3. 하나님의 경륜은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목표로 취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갈 3:5 상, 14, 비교 빌 2:13.

B. 육체에 이르도록 심는 것은 육체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관점을 가지고 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육체를 목표로 갖는 것이다.

1. 육체와 그 영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다. 우리의 목표는 육체 아니면 그 영 둘 중 하나이다—롬 8:6.
2.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육체에 이르도록 심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영에 이르도록 심는 것이고 우리가 심는 모든 것은 육체에서 나오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영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 둘 중 하나이다—시 126:5, 잠 22:8 상, 호 8:7 상.
3. 만일 우리가 육체에 따라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효과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계산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는 것이다—비교 막 4:14, 신 22:9.

C. 그 영이 우리의 목표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생명 공급이 될 것이다—갈 6:10, 고후 3:6.

D. 우리가 그 영에 이르도록 심을 때 그 영은 우리를 새 창조물로 만든다.
1. 새 창조물은 하나님의 선민이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을 그들의 목표로 취하고 그분을 푯대로 삼고 그분과 한 영되는 것에 속한 문제이다. 그 결과 그들 안으로 신성한 요소가 주입되어 그들을 재조성하고 그들을 새롭게 만든다—갈 6:14-15.
2. 영원한 생명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그 영에 이르도록 심은 것의 최종적인 결과와 수확이 될 것이다—갈 6:8 하, 요 4:14 하, 계 22:1-2.
3.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그 영을 우리의 목표로 취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께 이르도록 삶으로써 생명의 영원한 추수가 있을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신다. 우리의 생활 안에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목표를 갖는다면 얼마나 놀랍겠는가!

V.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유기체 안에서 생활하고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 안에 참여함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린다—요 16:13-15.

A. 신성한 삼일성의 유기체는 세 방면, 즉 요한복음 14 장 2 절의 아버지의 집(교회), 요한복음 15 장 1 절부터 5 절의 포도나무의 가지들(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성분들), 요한복음 16 장 21 절의 새로 태어난 단체적인 사람(새 사람)을 가지고 있다.
1. 이 셋은 모두 교회를 가리키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산출된 영광스러운 증가인 것을 보여준다—요 12:23-24.
2. 이 유기체는 삼일 하나님의 하나와 그분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 17 장의 그분의 결론적인 기도에서 이 문제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셨다.

B. 요한복음 17 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 곧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의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
1. 첫번째 단계의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고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에 의한 하나이다—요 17:6-13.
2. 두번째 단계의 하나는 거룩하게 하는 말씀의 실재 안에 있는 하나이다—요 17:14-21.
3. 세번째 단계의 하나는 과정을 거치시고 합병되신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하나이다—요 17:22-24.

VI.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심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린다—엡 5:18, 골 3:16.

A.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으로 충만된다면 그 결과는 그 영으로 충만된 윤리를 가진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이 될 것이며 그것은 신성한 속성들이 우리의 인간 미덕들이 된 결과이다—엡 5:18—6:9, 4:30, 살전 5:19.

B. 골로새서는 우리의 머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1:18, 3:4)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분이 그분의 머리되심을 행사하시고 그분의 풍성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길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함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 주님, 저는 저의 온 존재를 당신과 당신의 말씀에 드립니다. 저는 당신께 저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열어 드립니다. 주님, 저의 내적 존재가 당신 자신과 당신의 말씀을 위한 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C.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으로 충만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써 은혜와 실재에 있어서 새 사람과 부합하고(엡 4:24, 29, 21) 사랑과 빛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내에 부합하게 된다(엡 5:2, 8-9, 13-14, 22-25).

© 2014 Living Stream Ministry